

다문화사회 추세에 대비한 군복무 발전방향*

김광억**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과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소위 민족 혹은 인종적 배경이 다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향후 10~1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에 응할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때 한국군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됨에 따라 문화적 갈등과 긴장의 문제를 예상하여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이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의 극복과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의 배양에 힘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소위 혼혈 자녀들이 인종주의적 차별이나 이질감에 희생되지 않고 국민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자연스럽게 군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들 '혼혈' 자녀들의 군 입대의 동기와 성취감의 제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대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동시에 전투 병력으로서 만이 아니라 평상시 대민 봉사활동, 재난 발생 시 구조 및 복구 사업의 수행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해외의 다양한 재난지역에 파견되어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 및 재해 구조와 복구 사업 그리고 의료 및 산업시설 건설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에 대비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군 복무자의 소질과 능력과 특징을 살려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평소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인종차별적 혹은 혈통민족주의적 편견이나 왜곡을 극복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군 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가능하다. 요컨대 사회와 군의 관계가 한층 밀접하고 상호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6월23일 열린 육군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주제어: 혼혈, 조기해외 유학, 다민족 군대, 순혈주의, 종족민족주의, 다문화주의, 군대문화, 인종주의적 편견, 사회봉사 군대, 적응전략, 문화자본

1. 문제설정의 배경과 의의: 15년 후의 한국군대의 인적 구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사회문화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의 인구구성 혹은 사회구조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외국인(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단기 체류 혹은 장기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는) 이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면 다민족 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2%를 훨씬 넘어서 있다고 보도된다. 현재 각 도 마다 결혼의 25%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민족적 구성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강하게 지녀왔던 전통 즉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재고하게 만들었다. 식민지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혈통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이민족 혹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마치 반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같이 여기는 풍조가 강하였다. 특히 외모에서 드러나는 인종적 특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하였다. 가수 인순이는 그러한 대중적 민족주의에 의하여 민족의 혈통적 순수함을 더럽힌 행위의 산물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희생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그녀는 새로운 한국의 상징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88올림픽을 전후하여 그녀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무대 위에서 조국찬가를 열창하는 주역 가수였고 대중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따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 …”을 불렀다. 그러나 인순이처럼 언젠가는 결국 성공한 개인을 제외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위 ‘혼혈아’가 우리 사회에서 배척당하였고 마침내는 외국으로 입양되어 나갔던가.

2000년대 들어서 마침내 ‘한민족’의 생식을 위하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등 출신의 “외국인 신부”들을 맞이하는 “국제결혼”

이 전국적으로 일상화되기 시작하고 코리아와 아시아를 합성한 “코시안 가족”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외국인 배우자를 택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그리고 이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단기 체류하면서 일상의 거리를 채우는 풍경을 연출하게 된 것은 한국인이 갑자기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었거나 순혈주의에 바탕한 대중적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열린 세계시민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저출산 풍조의 확산 그리고 3D 업종의 기피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출산 조절과 여성의 공직 영역 진출과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추세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남성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국제결혼과 외국인 이민 숫자는 최근들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족과 한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이 전체 외국인과의 결혼자의 50%를 훨씬 상회한다. 그 다음이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의 순서이며 이 외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등의 여러 나라 출신의 배우자들과의 결혼 사례들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인과의 결혼은 대개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의 결혼이지만 그 외는 한국인 남자의 가정 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낮은 수준의 가정 출신이 많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이나 결혼 전의 직업이 결코 현재의 남편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 외국인과의 결혼 부부를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개개인을 문화의 담지자로 볼 때 다종족 사회는 곧 다문화 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화란 언어, 관습, 풍속, 가치관, 종교 등으로 이루어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나 혼혈가족이란 말 대신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쓰게 되었다.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다. 소위 외국인이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한 민족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다문화 사회라 하고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곧 바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개념적 단어가 아니

다. 우리가 동일한 민족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그 속에는 즉 우리의 일상의 세계에는 지구상의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들로 가득 차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 이 단어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 문화로 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인식을 하지 않지만 이미 다문화 사회 다문화 시대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 공동체가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 요소와 유행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 외에 그 문화의 담지자 혹은 주체인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의 다문화 사회는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 그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성이 어떤 방식과 형태로 분배되고 결합되느냐에 따라화 규정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베트남에서 시집 온 신부가 한국문화에 서툴러서 생기는 일을 문화적 갈등의 한 예로써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한국문화와 베트남 문화의 결합이나 갈등의 사회라 할 수는 없다. 결혼을 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만간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타협과 적응을 할 것이며 소수의 이주자는 한국 사회의 제도와 관습과 가치체계에 익숙하게 된다. 우리가 현 단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점은 그러한 일단의 문화적 타협과 적응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 소통과 이해의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유행에 맞추어 서술의 편의를 위한 제한적인 맥락에서 일단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른 인종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외국인’¹⁾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시민운동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 교육의 결과 이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공동체의 이질성을 인정하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어서 종종 가정이나 사회 일각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과 국민(또는 시민)의 개념이 정

1) 이때 외국인이란 말은 옳지 않다. 결혼과 더불어 그(녀)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국민이기 때문이다.

리되어 있지 않아 혼동을 일으키는 예가 많다. 둘 이상의 민족 집단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는 오늘날의 거의 모든 나라와 달리 한국은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한 혈통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신념이 굳게 뿌리박혀 있어서 대한민국은 곧 한국인 즉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생각을 한다. 민족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단위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민족의 공식은 일본에서도 신화조작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민족=종교=국가라는 신화에 집착하여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점차 눈에 띄는 정도로 다양한 문화배경과 인종적인 특징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그들 사이의 문화적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공민)으로서 가지게 되는 법적 지위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 균열은 단순히 언어와 일상생활 수준에서 겪게 되는 낯설과 비익숙성에서 야기되는 것 뿐 만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 자아내는 문제인 동시에 이들을 별개의 종류의 인간으로 보려는 한국 사람들 즉 타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도 한다. 정부와 NGO 그리고 학계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한국음식 한국 예절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들 '외국인' 신부 혹은 신랑이 한국에 동화되는 것을 도와주 것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제약되는가의 문제에 법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공동체적 다민족 국가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더 진지한 우려를 하자면 앞으로 다민족으로 형성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국가체제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감정이나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각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갈등과 긴장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이다.

국민이 누려야 하는 평등한 권리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고 제공해야 하는 기회와 복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단일민족을 전제로 하여 제정한 제도와 법규와 체계를 다민족 국가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소위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적응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이질적인 문화의 수용과 갈등의 공존 속에서 특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는 15년 후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신중히 생각

하게 된다. 특히 통합과 일사불란한 질서가 요구되는 군대가 국민 개병제에 의하여 다문화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상할 때 이에 대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예견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현재 다문화가족 사회와 그 추세

다문화 가정을 인종적 배경이 다르거나 민족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가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의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열악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의 소위 선진국의 시민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서 중산층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국적으로부터 오히려 이익을 취하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편과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부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의 사회와 경제구조 그리고 현재까지의 문화체제로 보건데 이들이 향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할 가능성이나 여건이 확실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것이다. 비록 동세대의 순수 한국인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들이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불편한 조건에서 상승 발전을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인종적인 차이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통합 역시 완전히 혹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내부적 소수민족”으로 범주화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들이 대부분 경제 및 사회적 소수자를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틀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열악성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교육과 인맥의 질과 양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로 재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통합의 차원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주제이다.

물론 그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받게 되며 다문화 시대에 적응하는 많은 사회 및 문화적 시민운동을 통하여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가이념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만약 있게 되면 국가 시민권(state citizenship)의 인정을 받는 데에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같은 세대의 한국인으로서 정상적인 문화적 소질을 갖추게 될 것이지만 신체적 특징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은 인위적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평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는 일이 많이 발견된다.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특히 야단을 치거나 비판을 할 때에 그러하다.

다인종 혹은 다민족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다문화 시대에는 민족주의 특히 순혈주의적 상상에 입각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차로 민족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가 분리되어 인식되고 결국 국가주의가 민족주의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분리되며 여러 인종과 민족적 차이의 벽을 넘어서 국가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른바 애국주의가 보다 설득력과 통합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한민족 혹은 한국인이라 우리가 현재까지 범주화하는 사람의 인구가 이들 ‘혼혈인’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민족과 국가가 결합되는 성향이 쉽게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숫자라도 그 목소리를 있는 법이며 사소한 듯이 보이는 갈등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에게 정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한국인 혹은 한민족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화되기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이들을 한민족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3. 다문화 부대로서의 한국군

1) 군의 구성과 문화적 성격

이미 최근 들어서 군복무 기간의 단축과 선택적 복무의 허용 혹은 지원제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군복무자의 숫자 혹은 병력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 다문화 가족 출신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응하든 자원의 방식을 통하든 군복무를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군대는 문자 그대로 다문화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군입대 연령에 도달할 때에는 한국의 생활문화를 충분히 익히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외국인 신부’인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식 생활방식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라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들 2세 자녀들은 가정 바깥에서 생활 속에서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문화적으로는 온전한 한국인이 될 것이다. 다만 피부색깔이나 신체적 특징에 있어서 소위 ‘혼혈아’의 특징을 지닐 것인데 이에 대한 한국인 전통의 인종차별적 혹은 편견적인 시각과 반응이 얼마나 없어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최근 혼혈아 뿐만 아니라 조기 해외 유학의 유행에 따라 장기간 외국생활을 한 후 입대를 한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사병들 사이에는 이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본인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입술이 두텁거나 얼굴 피부 색깔이 짙은 사병에게 ‘너는 왜 그러냐’ 혹은 ‘아프리카에서 왔냐’라는 식의 조롱이 섞인 말을 하거나 출신배경이나 가족사항을 묻는 등의 모멸적인 언동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조기 유학을 한 한국인 부부의 자녀인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 수준이나 억양이나 말투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를 두고 ‘민족이나 국가의식의 박약’마련거나 ‘영어 (혹은 해당 국가의 언어) 해보라’고 놀리기를 즐기는 일이 있다.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성장한 기간이 짧은 사병들은 자신이 살아온 현지의 사회생활 방식에 젖어서 종종 심리적인 위축에서 시작하여 실제로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

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늘날 군대 안에서 긴장과 갈등은 장교와 사병 간의 지휘체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병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더 자주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휘관들은 이러한 사병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갈등은 사병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크고 작은 문제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군대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병들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군대 내부에서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여하히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들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병을 여하히 적절한 역할 배치를 통하여 군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2) 한국군의 미래의 역할

한편으로 미래의 군대는 단순히 전투부대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개발할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하여 구조 사업이나 복구사업 그리고 대민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군대의 존재의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세계질서 체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은 국내에서 대북 국토방위의 역할에서 점차 해외 파병의 폭도 함께 넓혀나가게 될 것이다. 즉 전투 병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의 치안유지나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며 평화 시에도 조직된 힘으로써 할 일이 있다. 즉 군은 국내에서 다양한 대민활동을 하지만 점차 세계 질서 체제 속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의 제고에 따른 해외 봉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하나로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최근들어 몇 차례 경험을 하였듯이 평화군으로서 해외에 건설 사업이나 의료봉사 활동을 위하여 파병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공병과 의료 뿐만 아니라 건설과 복구 사업을 위한 기술봉사 부대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군대의 역할의 다변화와 함께 복무지역의 탈국경적 확산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병들로 형성된 군대의 기능적 공헌도 역시 개발하기에 따

라서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

3) 군복무와 사회생활의 연계성

군복무는 또한 점차 전문적 기술과 훈련을 쌓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국민개병제에 따른 의무적인 군복무에서 선택권이 확산될 수 있다. 만약 군대가 전문기술의 학습 및 지속적인 훈련의 장이 된다면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가능하다.

현재의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과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본인이 현역 복무 또는 공익근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제136조). 이전에 혼혈 사병에 의한 부대 내 사고를 겪으면서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다가 다시 혼혈의 경우 2005년에 귀화 국민의 경우 2007년에 지원에 의한 복무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군복무가 주는 인생의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병역 복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력을 필하는 의미 외에 군대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박정희 시대에는 군대에서의 학습과 복무 경력이 제대 후 취업과 연결되도록 국가차원의 제도화에 노력하였다. 현재에도 현역복무를 필한 후 소위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 기술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나 점차 군대에서 제공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부문이 사회에서 제공받는 것에 비하여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예컨대 운전기술이나 면허는 이제 특권적인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오히려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의 습득 및 생활화는 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점차 사회적 진출의 기술습득이나 자격을 획득하는 기회를 위한 군복무의 유인력은 약하다고 보인다.

나아가서 여성해방론자 혹은 성평등주의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확산되면서 군복무 경력을 사회적 진출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바꿈으로써 군복무가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응의 자원이 되는 매력에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가 인생 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문민사회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군의 중요성이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군 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한 법적인 구속력에 의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당연하다. 여성이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라는 운동이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부과 철폐운동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출산은 엄밀히 말하여 개인의 선택권에 의한 것인데 비하여 군복무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산점 제도가 확보되고 군대와 사회 특히 기업체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출기회가 제한되거나 열등한 입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군복무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출신의 청년도 그 중의 하나가 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군대가 사회와 격리됨으로써 군대문화와 사회문화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였고 군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통과 의례 혹은 성인식 의례의 문화과정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군대와 사회의 관계는 밀접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군대 바깥의 소위 사회문화가 군대 특유의 통제와 규율 속에서 군대문화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군복무를 의무복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논하지만 실은 장기 지원 복무자 혹은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자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사회에 수용될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는 훈련과 학습이 주어져야 하며 사회적응이 원활하도록 문화적 적응력을 배양하는 학습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또 다른 의미의 다문화 군대

다문화 군대라는 말에는 소위 다문화 가정 출신자를 염두에 두고 논해왔지만 실은 해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문화에 익숙한 사병들이 늘어남으로써 동일 군대 안에서 이미 문화적 이질성이 나타나고 또한 갈등의 가능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외동포의 자녀 중에도 한국군에 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호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종족적 배경에서 이질적인 소위 혼혈아 사병이 증가함으로써 군대는 단일하고 단순한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소위 해외 유학파와 국내파 사병들 사이에 이질감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부대 지휘관의 노력에 의하여 얼마간의 상호적용 과정을 거친 후에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간다. 특히 전우애를 강조하는 부대일수록 그러한 감정상의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영어를 비롯하여 외국어가 소용되는 업무에 이들이 투입되며 컴퓨터나 기타 특기를 살려서 부대 내에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서 당사자 사병은 물론 부대 전체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영어를 잘 하는 사병은 문서처리나 필요할 경우 통역을 담당하고 사병들에게 영어 학습을 도와주기도 한다. 오늘날 부대생활은 이전과 달리 오히려 다양한 문화생활이 군대라는 특별한 공간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상되는 문제점과 좋은 점

군대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의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학습과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다문화 가족 출신 군 인력의 존재는 일차적으로는 문화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데에 갈등 요소가 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잘 운영한다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헌이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소질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순수혈통의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출신도 군복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획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군복무 경력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도 그 하나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이미 병역 의무에 응할 시민권을 부여 받았으므로 미국에서 처럼 시민권 획득의 보장을 위하여 이민가족의 자녀가 군복무를 지원하게 할 명분은 없지만 다른 인센티브에 의하여 군복무를 지원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군복무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중요한 진출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군대에 들어가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교육을 받으며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얻는다. 군대는 예술과 과학기술 인

력으로 성장하는 교육과 훈련 및 실천의 장치가 있다. 그러므로 군입대는 이들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이나 중국에서 소수민족(물론 그들도 공민권이 주어지지만)은 군대에 “뽑히는 것”을 경쟁한다.

한국에서 군복무의 인센티브 개발과 강화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부에서 문화적 이질성의 존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순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와 이들 사이에 어떤 동질감과 동류의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공식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국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의 미덕과 윤리가 있지만 의식 심층에 자리잡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언어 및 예절 그리고 감정 혹은 정서의 불일치와 비숙련에 대비하여야 한다. 용어와 언어의 계층화가 군대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민족, 국가, 이념, 문화에서 성숙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며 순수 한국혈통의 사병들 역시 이문화와 종족적 이질성을 수용하는 능력이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배경으로 인한 이질감이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이로 차등적인 대우를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 자체가 다문화 수용능력을 길러야 함과 동시에 외모상의 인종적 특성에 잘못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휘관의 문화적 자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사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국가 전체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다인종적 집단이며 또한 군대가 자국 영토를 벗어나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지역사회에 주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이해와 적응 및 타협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해외 파병을 하는 나라일수록 군대는 전투만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한 외교 세력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휘관은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병들을 하나의 통합된 질서체제로 묶는 임무를 수행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사병 모두가 주둔지의 사회와 소통하

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문화와 이민족 혹은 종족과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능력을 얼마나 갖추는가는 우리 군의 미래상에 비추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새로운 문제꺼리임에 틀림없다.

해외 주둔지에서 해당 지역의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 출신의 사병이나 지휘관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와 국가에 친근한 존재로 접근할 수 있고 적응에 유리하여 현지 사회 안에 군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가를 위하여 효과적인 외교활동과 대민 봉사활동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배경의 군인은 한국군의 국제적 활동에서 또 다른 유형의 엘리트로 배양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적응력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외모상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한국인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치 미국인 병사가 한국 및 한국군대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처럼 상상할 필요는 없다. 민족 혹은 종족적 배경이 다른 사병의 증가에 대하여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여 특수 분야에 복무케 하는 방안과 이들을 소위 순수 한국인 출신의 사병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질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후자의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지적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혈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과 감정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휘관과 동료 그리고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익 외(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 김광익 · 황익주 편(2006), 《광복 60년,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광익 편(2008), 《세상읽기와 세상만들기: 사회과학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두승(1993),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Tavistock.

Some Considerations for Korean Army in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Era

Kim, Kwang-Ok*

Korea as a whole is being radically transformed to a so-called multi-national state as inter-national marriage and foreign immigrants are sharp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it is noted that the number of returning young people educated abroad is distinctively increasing.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Korean army, as in other sectors of the whole society, will be consisted by soldiers of various bio-ethnic background and cultural diversity accordingly.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dict possible tension and conflict among soldiers and try to find out proper solution. We need to develop social educational programs to popularize the idea of multi-national community and multi-culturalism on the one hand and to eliminate the deeply rooted racial prejudice and ethnic and cultural nationalism based upon the imagination of pure-blood. Furthermore, the army has to refine its institutional structure and system to accommodate various cultural abilities of those educated abroad as well as physical/biological specifics of those 'mixed blood' children' so that they are transformed to be positive cultural resources and capitals to elevate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army.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the Korean army shoul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ystems to practice multi-culturalism as the army will increase its role as peace-keeping service army not only for social service but also for various rescue activities in natural disasters like earthquakes and flood, and socio-political dispute

* Professor of Anthropology dep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gions abroad.

Keywords: Mixed-blood, study abroad at early age, multi-national army, idea of pure-blood, ethnic-nationalism, multi-culturalism, racial prejudice, army as social service force, adaptive strategy, cultural capital

